

03 사람들

중앙동아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다,
중앙동아리연합회장 김닛시 학우 인터뷰

05 학교

제1회 인사의 날: 진리전 개최

06 문화

맛·멋·흥이 가득했던 '전주페스타 2024'



▲ 소논문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박지용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모습 (사진 제공 | 인문콘텐츠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2024 우애 소논문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지난 10월 24일 성현홀(진리관 307)에서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한일 관계에 대한 해법'을 주제로 한 강의와 '2024 우애 소논문 콘테스트 시상식'(이하 소논문 콘테스트)을 진행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이자 공익재단법인 우애 이사장(이하 하토야마 전 총리)이 직접 참석해 소논문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5월 하토야마 전 총리가 우리 대학에 방문해 '우애'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나에게 우애란?"이라는 주제로 소논문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행사는 이에 참여한 학생들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표창장 시상에 앞서, 남휘정 성신여대 학술연구교수가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한일 관계 해법: 우애>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문화 콘텐츠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분석하며, 특히 일본 국민의 반성적 자세가 드러난 문학 작품들을 소개했다. 오에 겐자부로의 『새로운 사람』에게, 하토야마 유키오의 『탈대일본주의』, 히토츠바시 대학교 학생들의 『우리가 모르는 건 슬픔이 됩니다』와 같은 일본 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세 권의 책을 추천했다.

강연 후 진행된 소논문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박진배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우애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안했다"라며 수상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소논문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총 10명의 학생들(일본어 부문 9명, 한국어 부문 1명)이 표창장과 상금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일본언어문화학과의 박지용 학생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여 하토야마 이사장님처럼 한일뿐만 아니라 세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일본어로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제93대 총리를 지냈으며, 지난해 9월 우리 대학에서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바 있다.

|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재학생들의 아침밥 지킴이, 천원의 아침밥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재학생들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된다. 2022년 2학기부터 지속해온 해당 사업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운영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변화는 운영 장소다. 기존에는 교내 식당인 학생회관과 스타센터에서 진행됐지만, 이번 2학기에는 학교 후문에 자리한 가게를 섭외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번 천원의 아침밥은 우리 대학 후문에 자리한 봉구스 밥버거에서 10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키오스크에서 천원의 아침밥 메뉴 선택을 통한 간편 주문이 가능하다. 주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모바일 학생증을 지참해야 하며, 1인당 3개라는 수량제한이 있다.

장소 외에도 요일과 운영 시간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학기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늘어나 더 많은 학우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로, 기존의 9시부터 10시 30분에서 2시간 더 연장됐다. 이로 인해 수업 시간과 겹쳐 이용하지 못하거나 운영 시간이 짧아서 불편을 겪던 학우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이번 사업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와 성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마경진 기자(alfpwnsg12@jj.ac.kr)

전북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순찰로봇

지난 9월 26일, 전주 천변에서 낯선 광경이 벌어졌다. 많이 선선해진 날씨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 사이에서 무릎 높이 정도의 로봇이 강변을 따라 산책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였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자율순찰로봇 현장 시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자율순찰로봇은 경찰이 직접 순찰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를 순찰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시연 당일 많은 시민이 시연을 구경하며 관심을 보였다.

자율순찰로봇이 첫 시연을 선보인 전주 천변은 산책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지만,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가로등이 적고 CCTV가 부족하여 범죄에 취약한 구역이 많다. 자율순찰로봇은 적외선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어두운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어 낫치나 쓰러짐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징후를 포착하고 곧바로 경고음을 울리거나 관제센터로 정보를 전송한다. 이 로봇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시간 동안 순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이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충전시설로 복귀해 자체 충전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시연은 전주대학교 연구진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영역의 일환으

로, 내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 천변처럼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며, "천변을 시작으로 경찰과 연계하여 대학가 등 상대적으로 방범 요소가 부족한 지역에 로봇 순찰을 활성화해 전북 지역의 범죄 취약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자율로봇은 이미 배달, 서빙,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항에서 로봇이 짐을 들어주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이를 치안에도 적용한다면 경찰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시연을 통해 성능을 입증한 자율순찰로봇은 현재는 제한된 범죄 상황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나, 과거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점차 학습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순찰 과정에서 로봇이 다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경찰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전주 천변을 순찰하는 자율순찰로봇 (전북도 제공)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글로벌대학30』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와 과제 재조명

10월 30일 우리 대학 본관 4층 회의실(경기전)에서 제3회 전주대학교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윤찬영 대외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대학30』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은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참석자 모두의 자유로운 참여와 발언을 위해 형식적인 절차는 배제한 채 최대 5분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 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성찰하고, 향후 개선 방향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글로벌대학30' 사업 재도전 여부를 검토하며, 재도전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학교가 글로벌 대학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꼽았다. 첫째, 정부 정책과 입시 시장 사이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우리 대학의 지향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둘째,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대학 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한계도 주

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토론자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낮은 참석율을 지적하며, 대학의 미래 방향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토론자들은 우리 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차별화된 강점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역할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차별성 확보를 위해 우리 대학이 중점적으로 육성할 특성화 분야를 정립하고,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진배 총장은 "우리나라 지역 대학은 현재 발전지향적 생존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대학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 포럼에 참석한 대학 구성원들 (대외협력홍보실 제공)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MEDIA CENTER

대학신문사

수습기자 상시모집

모집부문

취재부: 교내 행사, 사건·사고 취재 및 인터뷰, 기사 작성

편집부: 기사 참고 자료 제작 및 사진 보정, 인디자인 프로그램 활용 종합본 PDF 제작, 일러스트 및 이미지 제작

활동혜택

- ✓ 미디어장학금 지급
- ✓ 각종 여도비 프로그램 비용 지원

접수방법

지원서(미디어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에 첨부) 작성 후, 대학신문사(news@jj.ac.kr) 이메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최소담
편집장 | 송단비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중앙동아리연합회장



김닛시 학우 인터뷰

중앙동아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다



최근 중앙동아리연합회 'RE:BORN'과 문화관광대학, 경영대학, 문화융합대학이 함께 주관한 연합축제 '찬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학 생활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학생자치 기구 중 하나인 중앙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학우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중앙동아리연합회를 이끄는 김닛시 중앙동아리연합회장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전주대학교 제39대 RE:BORN 중앙동아리연합회 연합회장 김닛시입니다. 우리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소속되어 있는 54개의 동아리들과 함께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학우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중앙동아리연합회의 비전을 좀 더 잘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중앙동아리연합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우분들을 위하여 기구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전주대학교의 자치 기구 중 하나로, 각 중앙동아리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아리원들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전주대학교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아리들이 학문적, 문화적 관심사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우 여러분들이 중앙동아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동아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며, 동아리원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중앙동아리연합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던 활동 중, 가장 보람차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유와 소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A. 올해 진행했던 많은 행사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찼던 활동은 역시 중동제 '찬란'입니다. 중동제는 중앙동아리연합회의 핵심이자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이번에는 특별히 경영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과 함께 협력해 준비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10월 8일에 진행된 중동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활기찬 축제가 되었습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힘을 합쳐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를 통해 중앙동아리들이 더욱 많은 학우에게 알려지고, 개별 동아리의 매력을 홍보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학우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더욱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더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습니다.

Q.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남은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A. 2024년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저희 RE:BORN 중앙동아리연합회에서는 아직 많은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메인 공약인 '실 틈 없는 리본' 역시 마지막까지 색다른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또한, 꾸준히 진행해 온 생일 이벤트와 기말고사 이벤트도 함께 준비 중이며,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4분기 정기 대표자 회의도 예정되어 있으니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중앙동아리 회원 및 학우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Q. 연합회장님이 생각하는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만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A.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현재 총 54개의 동아리가 운영 중이며, 각각 독특한 색깔과 주제를 가지고 있어 학우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탐구부터 취미, 체육, 예술, 종교,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서로의 관심사와 열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더 많은 학우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시면, 중앙동아리연합회 인스타그램(@jj_39_re_born)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Q. 마지막으로, 중앙동아리 회원분들과 아직 동아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중앙동아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아직 동아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우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대학교 중앙동아리는 단순한 문화공간을 넘어, 여러분의 관심사와 열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54개의 다양한 동아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진행된 중동제 '찬란'에서 많은 학우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참여는 중앙동아리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재밌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중앙동아리에서의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미 동아리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다양한 동아리의 문을 두드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학 생활의 꽃, 중앙동아리연합회 'RE:BORN'과

소속 중앙동아리 소개



지난 10월 8일, 우리 대학 제39대 중앙동아리연합회 'RE:BORN'과 문화관광대학, 경영대학, 문화융합대학이 함께 주관한 연합축제 '찬란'이 개최됐다. 이번 중동제는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날 순간"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학생회관 로터리 일대에서는 중앙동아리에 소속된 각 동아리의 체험 부스와 함께 중동제에 참여하는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준비한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오후 5시부터는 노천극장을 무대로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개회식 이후 중앙동아리 문화예술분과에 소속된 8개 동아리에서 차례로 각 동아리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오후 9시 30분부터는 초청 가수 '나상현씨밴드', '김나영', '스키니 브라운'의 공연으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중앙동아리연합회와 세 단과대학의 화합을 보여준 자리였으며, 각 동아리에서 갈고닦은 재능이 모여 빛낸 축제였다.

지난 9월 4일 'RE:BORN'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2024학년도 2학기 중앙동아리 소개집에 따르면, 현재 우리 대학의 중앙동아리는 문화예술분과, 취미체육분과, 종교분과, 봉사분과, 학술분과로 나뉘어 있으며, 총 54개의 동아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화예술분과에는 사진 동아리 '호롱', 댄스 동아리 'UCDC', 뮤지컬 동아리 'MF', 힙합 동아리 '맨인블랙', 성우 동아리 'CV', 그림 동아리 '파스텔', 밴드 동아리 '파랑새', 만화 동아리 '코믹스', 버스킹 동아리 '은하수'와 '노래방', 기타 동아리 '알함브라', 영화 감상 동아리 '스크린', 다목적 음악 동아리 '쉽표', 연극 동아리 '벚단' 등이 있다.

취미체육분과에 소속된 동아리는 보드게임 동아리 'JJ보드게임즈', 유도 동아리 '전유회', 여행 동아리 '붓집들'과 '트레블메이커', 산악 동아리 '산악부', 배드민턴 동아리 'J.U.B.C', 볼링 동아리 '핀터치', 레저스포츠 동아리 'SEAL', 헬스 동아리 'HEALTHY', 테니스 동아리 'JJ테니스', 뜨개질 동아리 '몽실몽실', 버킷리스트 동아리 '기회주의자' 등이다.

종교분과에는 기독교 동아리 'DFC', 'CCC', '네비게이트', 'ESF', '컴앤씨', 'IVF', 'DSM', 'SFC', 'JDM', '예수전도단', 'CMI', '소울메이트', 'YMC'와 가톨릭 동아리 '가톨릭학생회' 등이 있다.

또한 봉사분과에는 아동-지역사회 봉사 동아리 '굿씨드'와 적십자 동아리 'RCY', 환경 봉사 동아리 '지구대', 자원봉사 동아리 '대학새마을' 등이 소속되어있으며, 학술분과에는 공모전 동아리 'CONTI', 영어 동아리 'B.I.C', 창업 동아리 'CEO', 역사 동아리 '역사랑', 광고 마케팅 동아리 'I.S.T'가 있다.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소속된 중앙동아리를 관리하고 활동의 중심이 되는 학생 자치 기구이자 집행 기구로서 우리 대학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대 중앙동아리연합회 'RE:BORN'은 "다시 태어날 우리의 선물 같은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앙동아리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중앙동아리연합회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행사 소식과 매달 발행되는 중앙동아리 소식지, 제휴 업체,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은 인스타그램 계정(@jj_39_re_born)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RE:BORN'에서는 지난 9월 13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해당 일자까지의 공약 이행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4개의 메인 공약 중 농촌봉사활동, 실시간 커뮤니티 개설, 쉴 틈 없는 리본의 세 공약이 이행 완료되었으며, 분과별 연합 M.T는 현재 진행 중이다. 더불어 시설, 소통, 홍보, 복지 등 다양한 세부 공약들이 대부분 이행 완료되어 총 84%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 중앙동아리연합회

기사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디자인 |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 중동제 전체스태프

제1회 인사의 날

진리전개최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인사의 날: 진리전'이 진행됐다. '인사의 날: 진리전'은 인문콘텐츠대학과 사범대학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다. 운동으로 하나 되는 진리관을 주제로 진행된 운동회는 인문콘텐츠대학 2팀, 사범대학 2팀이 참여했다. 각각 인, 콘, 사, 범이라는 이름을 가진 4팀으로 이뤄졌으며 '인' 팀은 일본언어문화학과,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영어영문학과, 신학과경배찬양학과가, '콘' 팀은 역사콘텐츠학과, 중국어중국학과, 한국어문학창작학부가 참여했다. '사' 팀은 국어교육과, 과학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한문교육과로 구성되었고 '범' 팀은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로 구성됐다.

계주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4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각 순위별 점수를 책정하여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었다. 남자 출전 종목으로는 축구, 농구, 족구를, 여자 출전 종목으로는 피구, 버블 풋살, 승부차기를 진행했다. 혼성·단체 종목은 짝 피구, 계주, 줄다리기로 이뤄졌다.

19일에는 종목별 예선 경기가 진행됐다. 축구, 족구, 짝 피구, 버블 풋살 경기에서 '인' 팀과 '범' 팀이 만나게 됐고 '콘' 팀과 '사' 팀이 붙게 되었다. 승부차기, 줄다리기 경기는 '콘' 팀과 '범' 팀, '인' 팀과 '사' 팀이 만나게 됐고 농구, 피구 경기에서는 같은 단과대 팀들끼리 붙는 내전이 성사됐다. 20일에는 종목별 3, 4위전 경기와 결승전이 진행됐다. 인문콘텐츠대학은 9종목 중 4종목을 우승하였다. '인' 팀이 피구, 승부차기 종목을 우승하면서 종합 1등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콘' 팀은 버블 풋살, 계주 종목을 우승하여 종합 2등의 성적을 거뒀다. 사범대학은 5종목을 우승했는데 '사' 팀이 농구, 짝 피구 종목을 우승했고 '범' 팀이 축구, 족구, 줄다리기 종목을 우승했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참여 부스도 운영했다. 화음 인문콘텐츠대학 학

생회에서는 물병 세우기, 순두부 트래핑, 병뚜껑 날리기 부스를 진행했다. Better:We 사범대학 학생회에서는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만보기 챌린지, 제기차기 부스를 진행했다. 폐막식에서는 김건우 인문콘텐츠대학 학장의 폐회사와 함께 인사의 날 경품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건우 학장은 "같은 진리관 건물을 사용하지만 서로 접점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행사가 친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사의 날 경품 이벤트에는 경기 출전 선수와 학생회비 납부자, 학회비 납부자에게 응모권 1장씩의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메가박스 2만 원권 3명, 스타벅스 2만 원권 3명, 올리브영 3만 원권 5명, 아웃백 5만 원권 4명,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2명, 에어팟 3세대, 애플워치 SE 2세대가 상품으로 준비됐다. 경품 추첨을 끝으로 성황리에 '제 1회 인사의 날: 진리전'이 막을 내렸다.

기사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디자인 | 김예진 기자(ye_yejin@jj.ac.kr)



* + 맛·멋·흥이 가득했던 '전주 페스타' 2024

지난 10월,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전주페스타 2024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머무름이 있는 글로벌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전주페스타를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주페스타는 작년보다 10월 한 달간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열리는 전주 통합축제이다. 올해는 "10월, 더 맛있는 전주!" "맛, 멋, 흥이 있는 축제"라는 슬로건 하에 5개의 주요 축제와 다채로운 전시, 공연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주차별로 축제를 돌아보고자 한다.

<오프닝축제>

10월 3일, 전주페스타의 개막을 알리는 오프닝축제가 열렸다. "위대한 도약의 나래"라는 주제로 멀티미디어, 비보이&스트리트 댄스공연, 파이어 아트쇼가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10월 통합축제와 전주페스타 2024를 주제로 한 드론라이트쇼가 축제를 환하게 밝혔다. 트리플에스와 김범수의 축하공연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었다.

Calendar			
전주페스타 2024 캘린더			
10월 첫째주 (10.3-10.6)	10월 둘째주 (10.11-10.13)	10월 셋째주 (10.18-10.20)	10월 넷째주 (10.25-10.26)
오프닝 축제 (10/3)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10/11-10/13)	전주조선잡화페스티벌 (10/18-10/20)	클로징 축제 (10/26)
전주비빔밥축제 (10/3-10/6)	전주독서대전 (10/11-10/13)	전주마거리축제 (10/25-10/26)	전주안방어울림공연 (10/3)
전주안방어울림공연 (10/3)	국제한지전시소 (10/11)	전주페스타 맛자랑 (10/18-10/20)	드론쇼 (2,024대) (10/3)
드론쇼 (2,024대) (10/3)	한복모형선발대회 (10/3)	전주페스타 맛잔치 (10/11-10/13)	달콤스토어 with 푸키민 (10/3-10/6)
달콤스토어 with 푸키민 (10/3-10/6)	전주페스타 맛잔치 (10/11-10/13)	제트로 클럽 (10/2)	우리놀이터 & 우리안방 (10/3-10/6)
우리놀이터 & 우리안방 (10/3-10/6)	드론쇼 (1,012대) (10/11)	달콤스토어 with 푸키민 (10/18-10/20)	술 BOX (10/3-10/6)
술 BOX (10/3-10/6)	달콤스토어 with 푸키민 (10/11-10/13)	우리놀이터 & 우리안방 (10/18-10/20)	미션 & 미로 (10/11)
미션 & 미로 (10/11)	우리놀이터 & 우리안방 (10/11-10/13)	포토 BOX (10/18-10/20)	포토 BOX (10/18-10/20)
포토 BOX (10/18-10/20)	우리놀이터 & 우리안방 (10/11-10/13)	술 BOX (10/11-10/13)	술 BOX (10/11-10/13)
술 BOX (10/11-10/13)	우리놀이터 & 우리안방 (10/11-10/13)	술 BOX (10/11-10/13)	술 BOX (10/11-10/13)
술 BOX (10/11-10/13)	우리놀이터 & 우리안방 (10/11-10/13)	술 BOX (10/11-10/13)	술 BOX (10/11-10/13)

<10월 1주>

전주비빔밥 축제 '전주를 비벼라!'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주변에서 열린 전주비빔밥 축제는 한국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비빔밥을 소개하는 행사이다. 전주시는 비빔밥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축제를 통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브랜드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어린이 비빔밥 체험, 비빔골든벨 등 이벤트 뿐만 아니라, 비빔퍼레이드 스타 셰프 마스터 클래스 등이 있었다. 음식,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였다.

<10월 2주>

국제한지산업대전 '천년 한지! 문화로 받들고 산업으로 꽃 피우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제한지산업대전이 개최되었다. 종합경기장에서는 한지 체험 및 공연이 열렸으며, 안동, 괴산, 문경, 원주 등에서 생산된 한지들을 홍보했다. 또한, 목판인쇄와 탁본 체험을 비롯해 한지 문화와 공예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국가 무형유산 한지장을 초청하여 전통 한지 제조 시연도 선보였으며, 한지 패션쇼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한지 기획 전시도 열렸다.

전주독서대전 '가을, 책 틈 사이로'

전주독서대전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60여 개의 단체와 7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작년에는 한옥마을과 완판본문화관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주요 프로그램은 종합경기장, 저자 강연은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에서 진행하였다. 올해는 '틈'이라는 주제로, 나의 강점과 약점을 표현하는 글감을 골라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나의 빈틈 알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공모전 수상작인 전주 올해의 책 전시도 함께 열렸다. 특히, 풍선과 솜사탕 만들기, 제19회 어린이 독후활동대회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다.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에서는 10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저자 초청 및 전주 문인 강연이 열렸으며, 이주혜, 조예은, 김중혁, 김동식, 김금희, 이소연 총 6명의 작가와 전주 문인 이승훈, 이준호 등이 참여하였다.

<10월 3주>

조선팝페스티벌 '조선팝의 도시, 전주'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통 가락과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 공연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었다. 조선팝이란 '조선'과 'POP'의 합성어로 국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장르의 문화콘텐츠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전주 조선팝페스티벌은 유명 뮤지션 9팀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예 뮤지션 12팀이 노래와 악기 연주로 다양한 장르의 조선팝을 선보였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으며, 일부 공연은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에 공개

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향후 조선팝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해 전주를 조선팝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부대 행사로는 티셔츠 페인팅, 예코백, 머그잔 만들기 등이 함께 진행되어 축제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10월 4주>

전주 마거리 축제 '전주마거리에 흠뻑 반하다!'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주 마거리 축제로 전주페스타의 마지막을 알렸다. 올해 처음 열린 전주 마거리 축제는 전통주를 주제로 건강한 전통주와 함께 전통주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였다. 상설 콘텐츠로는 전주의 유명 마거리 가게들이 참여한 '마거리 맛집', 다양한 마걸리를 판매하는 '술도가', 과일로 만든 전주의 여러 마걸리를 시음할 수 있는 '전주 마거리 맛보기'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주요 콘텐츠로는 마거리 놀이, 마거리 선수권 대회 등 축제를 다채롭게 하는 행사들이 가득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도 즐길 수 있도록 '전주 온 가족 시민 장터'도 함께 열려 수공예 체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가을그림 대회 등도 즐길 수 있었다.

<클로징 축제>

10월 26일에는 한 달간 진행된 전주페스타 2024의 마침표를 찍는 클로징 축제가 있었다. 클로징 축제에서는 전주페스타가 진행된 종합경기장의 마지막을 담은 영상과 2,024대 이상의 군집을 이룬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졌다. 그리고 마이스 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종합경기장에서의 고별무대로 가수 테이와 다이아믹 듀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지난 10월 동안 진행된 전주페스타 2024를 돌아보았다. 맛, 멋 그리고 흥을 주제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들로 가득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면서도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이 돋보였다.

전주대학교 '사.자.성.어' 프로젝트, 사랑 전하러 590km 달린다.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는 재학생 부모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사자성어' 프로젝트의 시즌4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성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부모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완도, 목포, 순천을 지나 제주로 향하는 590km 여정을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진행하며, 이동 중 모금한 후원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학생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1학기부터 시작된 이래 이번이 네 번째 시즌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독교 명문 사학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선교봉사처 이진호 특임교수는 "학생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5@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도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공의라는 예배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레19:15)

재판의 생명은 공의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공의는 두 가지의 금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편드는 것과 유력하기 때문에 두둔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범주에 적용하면, 여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남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무식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유식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어리다고 편들지 말고 늙었다고 두둔하지 말고, 소수자라 해서 편들지 말고 다수자라 해서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편들지 않기가 힘들고, 악한 자들은 유력한 자를 편들지 않기가 힘들 것입니다. 후자보다 전자가 더 힘들어 보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참된 공의는 성별이나 빈부나 나이나 지위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혈연 등 이 세상의 어떠한 범주에 의해서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의에는 다수를 두둔하고 소수를 배제하는 다수결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언론도 보도나 침묵의 방식으로 개입될 수 없습니다. 공의는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요소만 그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도 행하고 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공의를 이해하고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제한적인 공의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지구는 억울함과 불의함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공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의 불의함을 숨깁니다. 수치를 수치로 여기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여론을 움직이고 다수결을 만들어서 공의의 기준을 바꿉니다. 그렇게 공의의 운동장이 기울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는 모든 것을 기준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자는 풍조가 생깁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유한 개성도 있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도 있습니다. 개성과 윤리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경계를 옮기거나 둘 중의 하나가 배제되면, 사회는 혼돈이나 독재에 빠집니다. 유기농이 좋듯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는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진실의 설명이 교회여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사회가 교회를 보고도 전혀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교회는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악입니다. 교회는 공의라는 예배를 위해 모든 경건과 재원을 갈아 넣어야 할 듯합니다.

기도문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주대학교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전주대학교 설립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인도해주시어, 우리 대학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대학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대학에 믿음과 지

성을 겸비한 교직원과 학생들을 보내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학이 진정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발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캠퍼스에 항상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더욱 널리 전파되어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세계 곳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과 지역 교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주대학교 공동체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문택 교수님
(인문콘텐츠대학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기자칼럼

노벨문학상을 받은 나라, 책을 홀대하는 나라



양예은 기자
(kikiyye@jj.ac.kr)

2024년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다.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이라는 위대한 타이틀을 달고 한강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문학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노벨문학상 수상 1년 만에 한강의 작품은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알라딘에 따르면 『소년이 온다』는 수상 발표 후 분당 18권씩 팔리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한강 작가의 책 다수를 출판한 문학동네, 창비, 문학과 지성사 등 출판업계는 40만 부 이상을 추가 발주하였고, 이로 인해 제지업계도 책 제작에 필요한 종이 생산을 위해 밤낮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분석한 공공도서관 대출량도 노벨문학상 수상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310.7% 상승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쾌거로 문학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 '한강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텍스트랩'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할 정도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독서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행식 독서 혹은 지적 허영심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출판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 증가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노벨문학상은 한국문학의 발전이자, 독서 열풍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의 독서를 지원하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를 담당하는 도서관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은 3년 연속 삭감되었다. 정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4.6%(33억 1,000만 원) 감소한 692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2년 876억 8,300만 원에서 2023년 765억 100만 원으로 12.8%(111억 8,200만 원), 2024년 725억 6,600만 원으로 5.1%(39억 3,500만 원) 삭감된 이후 또다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예산 감축으로 도서관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의 장 역할을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조차 삭감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상황은 더 열악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 예산 6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출판·독서 관련 예산에서 총 105억 원을 삭감했다. 서울국제도서전과 각종 해외 도서전 예산도 올해 들어 절반으로 급감했다.

도서관 예산 삭감 이유는 대부분 '이용률의 저하'이다. 그러나 도서관은 식당이나 마트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도서관은 시민의 평생교육센터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이다.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의 영유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도서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반문화적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또한 효율성의 잣대로 따지면 적자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들과 함께 동네서점 '책방 오늘'을 운영하는 한강은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점을 운영하는 이유를 "동네서점과 책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화와 독서가 우리에게 돈이나 밥을 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문화가 삶에 필수적인 이유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종합 독서율(1년간 책을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 비율)은 43.0%에 그쳤다. 즉, 성인 10명 중 6명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한강의 작품, 나아가 독서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러한 독서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독서 문화의 활성화와 도서 업계의 활력이 지속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인문학을 홀대하고 책을 홀대하는 대한민국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길 바란다.

<미디어 센터>



jju_media

전주대학교 미디어센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겼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해!

2024년 새롭게 출범한 전주대학교 미디어센터는 교내외의 뉴스와 정보를 보도하는 언론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대학신문사, 교육방송국, 홍보대사로 나뉘어 매체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공론장을 형성하고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및 사회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미디어센터 내의 여러 미디어 채널은 언론기관으로서 비판적 성찰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목소리로 뉴스를 보도하여 여론을 형성하며 대학 지성의 역할을 이어나갈 거야. 그리고 뉴미디어를 통한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풍성한 사회·문화·교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야.

교수칼럼

자신의 언어를 찾아가는 방법



성승택 교수
(문화융합대학 영화방송학과)

많은 이들이 저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쉽게 답할 수 있는 유용한 팁과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러한 조언만으로 정말 '잘 찍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오늘날 예술 분야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나 그림 같은 다른 예술 분야는 보통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배워야 대중 앞에서 연주하거나 전시할 준비가 되지만, 영상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우연히 포착한 장면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연히 얻어진 성과가 꾸준히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웹툰을 시작했지만 실력이 늘지 않아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배운 기간을 물어보니 3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의 진지한 표정에 용기를 주고자 "조금 더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조언했지만, 좀 더 솔직한 조언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후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구분창 사진전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전시는 창작의 여정과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분창 작가의 작업물들은 그의 10대 시절 사진 기록에서부터 시작해 60년에 걸쳐 쌓인 결과물들이었고,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우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매년 꾸준히 쌓여온 작업들이 이 전시의 무게와 의미를 더하며, 그의 작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구분창 작가의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가 꾸준히 쌓아온 작업의 양과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이 전시는 강렬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김종만 작가도 프로와 아마추어 사진가의 차이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마추어는 몇 장의 사진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프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천 장의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교육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언제나 3개월, 혹은 1년쯤 배웠을 때 한 차례 고비에 부딪힙니다. 과연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적성에 맞는지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을 탓하며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언제나 "조금만 더 해보라"고 권하지만, 그 시기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아 아쉬움이 큼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엄청난 의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영상과 사진을 잘 찍기 위해 단순히 많은 양의 작업을 반복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결코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최근 저는 사진과 영상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본 영화 "넌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희사태"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난 골드(Nan Goldin)는 자신의 작업에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그리고 자신의 일상 등 다양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약물 중독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약 회사와 법정 투쟁을 벌이며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사회적 활동으로 확장했습니다. 그의 사진이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으레 예술의 진정성에 대해 쉽게 언급하긴 하지만 담담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작품에 담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지요.

사진과 영상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이를 통해 자신만의 언어를 찾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술 창작에 대한 첫 접근은 자신의 내면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쉽게 기술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겠지만, 자신만의 언어를 찾는 법은 배울 수 없습니다. 창작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들끓는 감정과 이야기를 찾아내어 세상에 꺼내는 용기이며, 이와 더불어, 그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위한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입니다. 진정한 창작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때로는 아프고 혼란스러운 순간을 거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소 낯설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창작의 길엔 지름길이 없더군요. 저도 아직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칼럼

변질된 풍자, 웃음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



전지은 기자
(uptoillie20@jj.ac.kr)

쿠랑플레이의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6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SNL 코리아는 '과격적인 웃음, 과감한 풍자로 대한민국 트렌드를 이끄는 코미디 쇼'를 표방한다. 그러나 '풍자'에 대한 기준으로 몇 차례 논란을 빚었다. 지난 8월에는 공인이 아닌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짜깁기해 희화화한 것에 대한 지적이, 9월에는 걸그룹 르세라핌의 코첼라 라이브를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에는 10월 19일 공개된 영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거론하며 등장한 뉴진스 멤버 하니를 웃음거리로 삼은 것이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작가와 사내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법정에 선 아티스트가 과연 풍자에 적합한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해당 방송에서 한강 작가 특유의 표정과 말투를 과장되게 흉내 낸 부분과 외국인의 어눌한 발음을 희화화한 부분은 외모비하와 인종차별이라는 데에도 불을 지폈다. 네티즌들은 '깊은 고민 없이 따라 하기', '무엇을 의도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과 동시에 '방송은 방송일 뿐, 재미로만 보자'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대상을 패러디하거나 성대모사 하는 것은 예부터 지속된 고전적 개그이다. 그러나 왜 요즘에야 이런 웃음 코드가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걸까? 이유는 때마다 화제의 인물을 단순히 흉내 내는데 그치는 특유의 패러디 방식에 있다. 이는 방송의 핵심 키워드로 내놓은 '풍자'와 비슷한 듯하지만, 궤를 달리하며 불쾌함을 더하고 있다.

사건적으로 풍자는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며 씩'이라는 뜻이다. 자세히 풀어내면 풍자는 사회나 개인의 부정적 측면과 모순, 잘못된 행동 등을 간접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비판하는 방식이다. 익살을 통해 독자나 청중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풍자의 본질이다. 이러한 풍자는 고전 문학부터 현대 미디어에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선 시대의 탈춤과 같은 민속 공연이 있다. 당시 공연에서는 하인과 양반이라는 계층 간의 부조리를 조롱하며, 관객들이 강자에게 반감을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창구를 마련했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풍자는 대중들에게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방송에서 유행하는 풍자 방식은 그 대상이 가지는 맥락이나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화제성'만을 노렸다. 이는 풍자의 본래 목적과 다르며, 결국 웃음보다는 불쾌함을 유발한다. 풍자는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조리나 권력층의 위선을 꼬집는 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시청자들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조롱이나 비하를 웃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콘텐츠 속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찾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감대를 기대한다. 따라서 풍자를 표방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과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목적 없는 조롱이나 단순 흉내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를 꼬집는 시선과 그에 걸맞은 유머 코드를 갖춰야 한다.

결국, 풍자의 방향성과 그 대상에 대한 재고는 지금 이 시대에 필수적이다. 풍자가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사회적 성찰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도구로 남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해학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유머가 필요하다. 풍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그 의미를 되새길 때다.

Jeonju University Vietnamese Students Complete Commun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Jeonju University's (President Jinbae Park)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nnounced on the 11th of October that Vietnamese students participated in a "Jooking" volunteer activity, which aim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strengthen community bonds. "Jooking," a combination of "Jupda" (to pick up) and "hiking," involves collecting trash while hiking.

This activity was held around Mt. Cheonjam in Jeonju, where the students enjoyed the beauty of the area while collecting litter after receiving "Green Walking" training. Twenty international students took part in this event, earning 1365 Volunteer certifications and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integrating into the Korean community and contributing as community members.

Nguyen Phuong Thanh, a Vietnamese Ph.D. student, shared, "It was rewarding to feel a sense of prid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eeing my hours accumulate on the 1365 Volunteer Portal was very fulfilling. I hope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community by participating in more diverse volunteer activities in the future." Shim Young-guk, directo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stated, "This volunteer activity provided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deepen their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Jeonju University has also opened a social service course to encourage student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with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ting in group volunteer activities three times per semester. We expect that activities like Jooking will allow international student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ocal environment and foster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interaction with local residents."

article International Exchange Serv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Operates Namwon One Food Promotion Zone at Namwon International Drone Festival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eir plan to collaborate with the Namwo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to operate the "Namwon One Food Promotion Zone" as part of the 2024 Namwon Global Food Festival, held at the Namwon Sports Complex from October 3-6 in conjunction with the 2024 Namwon International Drone Festival.

This event is part of Jeonju University's "Gourmet Tourism Content Development Project Utilizing Local Resources," which was selected in the 2024 Regional Innovation Project (RIS) Policy Autonomous Task competition.

To start, the character "Baekhyangi," inspired by the local specialty crop of Namwon One Food, passion fruit, was introduced. This aims to provide tourists visiting Namwon with fresh and diverse experiences while highlighting unique gourmet tourism content.

Moreover, through various food pop-up events and a range of themed merchandise utilizing Namwon One Food, Namwon City's gourmet tourism industry aims to boost its competitiveness and establish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Additionally, the game content "BaekhyangGO," which features Namwon's passion fruit character in a virtual space,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promotion of Namwon One Food and raise its brand awareness.

Kim Soo-in, a professor of Korean cuisine at Jeonju University, noted, "The One Food Revitalization Project, based on Namwon City's high-quality gourmet resources, is expected to provide excellent gourmet services for local citizens and tourists alike. We will also pursue active collabor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Namwon One Food."

Meanwhile, Jeonju University and Namwon City plan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ourism fairs to actively promote Namwon's signature crops, aiming to expand into new global markets.

article Jeonju University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LINC 3.0 Project Group Participates in the 'SAH(4) Future Imagination Contest Idea Camp'

Jeonju University's LINC 3.0 Project Group (Director Kim Sang-jin) announced that the "2024 SAH(4) Future Imagination Contest Idea Camp" took place from September 26 to 28, 2024, at the Utop Ubleth Hotel in Jeju, with participation from a coalition of 12 universities in the Honam and Jeju regions.

This event is an idea competition for students majoring in Social Sciences, Arts, and Humanities to envision the futur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amp aimed to cultivate students' adaptability by encouraging innovative user experiences and to foster interest and participation among non-STEM (non-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majors.

The SAH(4) Future Imagination Contest, which began in 2019, is held annually by 12 universities in the Honam and Jeju regions, including Jeonju University, Gwangju University, Dongshin University,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Woosuk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Chosun University, and Honam University. This year marks the sixth edition of the contest.

In this year's competition, the "Global Genetic Data Company" idea presented by Jeonju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student Jang Seo-ik and his team won the Excellence Award. Jang Seo-ik shared, "I had a valuable opportunity to network with students from 12 universities over the three days and present our idea to a wide audience. This experience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me to achieve further success in various future activities."

Meanwhile, the outstanding works from the 2024 SAH(4) Future Imagination Contest Idea Camp will be exhibited at the "JJ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Week" held at the Jeonju University Student Hall from October 29 to November 1.

article LINC 3.0 Project Group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Signs MOU with Korea Publishing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Development Project Group announced on October 8th that it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Korea Publishing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Director Kim Jun-hee) to cultivate convergent talents and digital publishing experts who can lead and represent the value of the region.

The signing ceremony was held at Jeonju University's Truth Hall, attended by eight representatives from both organizations, including Lee Yong-wook, head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Development Project at Jeonju University, and Kim Jun-hee, Director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Under this agreement, both organizations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together to foster digital publishing experts among Jeonju University students. The cooperation will focus on the following key areas: ▲ joint efforts to train digital publishing experts for Jeonju University students ▲ collaborative planning and operation of relevant curriculum, such as convergence majors and MD courses ▲ co-hosting special lectures and providing commissioned education opportunities to enrich students' extracurricular experiences.

Lee Yong-wook, head of the project, stated, "This agreement is a foundational step toward nurturing convergent talents who will lead digital innovation and publishing culture using local resources.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gency to establish effective programs for training digital publishing experts."

Meanwhile, through i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Development Project, Jeonju University is dedicated to developing convergent talents who contribute to digital innovation and the creation of future value from local resources.

article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Training Project
Group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全州大学举行JJ-Friends寄宿家庭结缘仪式

全州大学越南留学生圆满完成地区社会环保活动



据全州大学（校长朴珍培）国际交流院消息，14日全州大学国际交流院举办了旨在帮助外国留学生适应韩国生活的 JJ-Friends 寄宿家庭结缘仪式。

全州大学通过多种方式帮助外国留学生适应在韩的学业与生活。作为这一目标的一部分，全州大学从2017年开始，运营了一项由校内教授与职员和外国留学生进行1:1结对的JJ-Friends 寄宿家庭结缘仪式。

全州大学通过多种方式帮助外国留学生适应在韩的学业与生活。作为这一目标的一部分，全州大学从2017年开始，运营了一项由校内教授与职员和外国留学生进行1:1结对的JJ-Friends寄宿家庭项目，旨在提升留学生的韩语能力并帮助其适应在韩国的大学生活。

在本次结对活动中，教授和职员与留学生一对一结成了7对。他们将在2024学年第二学期定期见面，通过韩语对话、体验韩国文化以及家庭访问等多种方式进行交流，并提供帮助。

此次结对活动的特别之处在于，由校内教授与职员亲自担任导师，为留学生在初期留学生活中遇到的实际困难提供帮助，而成为他们坚强的后盾。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酒店管理学教授）表示：“我们为你们走出原有的生活环境，挑战新环境的勇气而喝彩。希望通过此次结对，能够帮助你们解决在初期大学生活中可能遇到的困难。希望这份珍贵的缘分能够一直延续到毕业。”

中国留学生石昱昊（经营学系）表示：“非常感谢能在全州大学校园里找到一位导师。由于语言障碍和文化差异，主动接触韩国人并进行交流一直很困难，但通过此次结对活动，我找到了一位在遇到困难时可以求助的人。我将主动与教授、职员见面交流，并更加努力适应韩国生活。”

另一方面，全州大学国际交流院还表示，以后将持续扩大结对范围，不仅包括大学内部人员，还将与外国留学生进行1:1结对的的活动延伸到地方社会。



全州大学（校长朴珍培）国际交流院于11日举行了越南留学生参与的“捡旅行”（줍킹）志愿活动。这次活动加强了留学生对地区社会环境的保护意识，并增进了与当地居民的友谊。“捡旅行”是韩语“줍다(捡拾)”和外来语“hiking(徒步旅行)”的合成词，指的是在徒步旅行过程中捡拾垃圾的活动。

此次活动在全州的天蚕山一带进行。留学生在接受了“绿色步行（Green walking）”活动的教育后，一边捡拾垃圾，一边欣赏了当地的美丽景色。共有20名留学生参与了此次志愿活动，他们的活动获得了1365志愿服务认证。由此不少留学生决志在韩国扎根，并作为地区社会的一员贡献自己的力量。

越南籍留学生阮芳青博士生表示：“这次志愿活动让我为自己的环保行动感到很自豪。另外，我还看到自己志愿服务的时间累计在韩国1365志愿服务网站上，就更感到满满的成就感。今后，我不仅会参与环保活动，还要参加更多的志愿活动，给地区社会带来积极影响。”

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表示：“此次志愿活动为留学生加强与地区社会的联系提供了重要契机。全州大学已开设了社会服务课程，鼓励学生参与志愿活动，留学生每学期都会进行3次集体志愿服务。我们期望类似的‘捡旅行’志愿活动能够帮助留学生为地区社会的环境改善做出贡献，并通过与居民的交流，增进相互理解。”

全州大学通过Plus建设的赞助慰问缅甸留学生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于20日上午在国际教育馆会议室，通过Plus建设（代表罗春均,音译）的赞助，向30名缅甸留学生发放了中秋爱心分享礼物。本次活动旨在鼓励因缅甸内战而遭受心理困扰的缅甸留学生。

Plus建设一直持续赞助全州大学的各种活动，以帮助留学生更好地安心进行留学生活。缅甸留学生生门（SENGMUN，音译）表示：“虽然与家人沟通困难，经济上也有压力，但我一直在为实现梦想而努力。”他对Plus建设为缅甸留学生们所给予的关心和支持表达了感激之情。

Plus建设的代表罗春均希望通过此次活动，帮助留学生更深入地了解韩国文化、留下珍贵的回忆，并祝愿他们的梦想能够成真。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教授则强调了此次分享活动在缓解留学生孤独感方面的重要意义，并承诺通过持续的支持与合作，丰富留学生的韩国留学生活。

全州大学通过各种国际项目和交流，致力于培养全球化人才，为外国留学生提供良好的学习环境和各种生活上的支持。同时，通过与当地社区的合作，努力帮助留学生适应韩国的留学生活与学习成长。通过这些举措，全州大学在不断增强其在国际教育市场的竞争力，并为吸引更多优秀人才而进行着不懈努力。

JEBS의 모든 것

" 지성과 낭만의 소리,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

[10월 영상 다시보기]

- "과탐 희망자"의 시험기간 VLOG

기획 및 촬영 : 유보영, 이동현, 박민서, 박은진, 성보은

편집: 이동현
출연: 유보영

[JEBS 인스타 콘텐츠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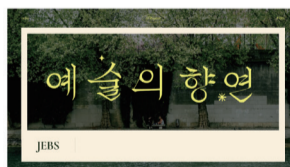
- 소방의 날이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소방의 날! JEBS와 함께 일상 속 소방 안전 수칙을 알아봅시다!

기획: 최윤서
제작: 최윤서

[교내 라디오 소개]

- 뉴스_정오의 천잠 월, 수, 금 점심방송
- 종교_십자가사랑 화, 목 점심방송
- 음악_크레센도 매일 아침방송, 화 저녁방송



- 자유_예술의 향연
- 세계적인 예술가와 그의 작품 설명
기획: 성보은



- 자유_키워드캐치
- 24년도의 주요 키워드를 라디오를 통해 나누는 시간
기획: 양하은



- 자유_베이스볼 이브닝
- KBO리그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라디오
기획: 최윤서



라디오 신청곡과 모든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으로!



Jeonju Future Cities Forum

전주미래도시포럼
2024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

2024.11.11 –
2024.11.13

호텔 라한



/24

The Future of Cities
Begins Today



전북대학교



한국관광공사

JJRI